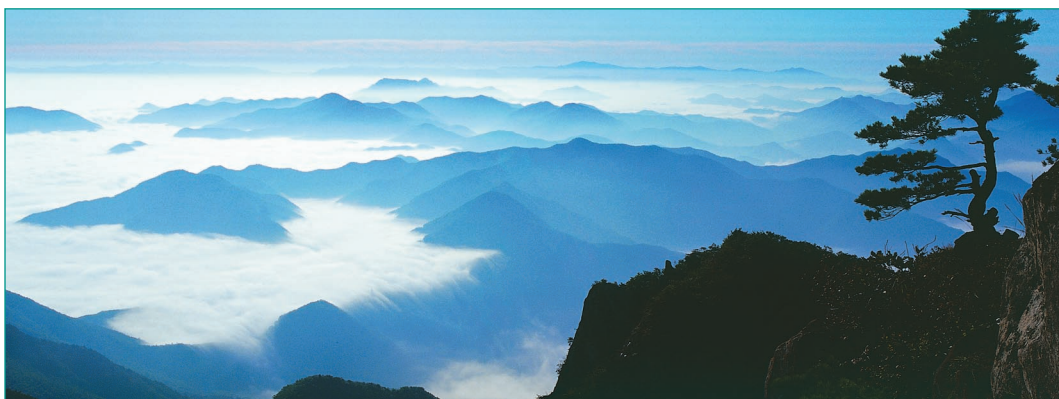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조영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금산읍의 현황

충청남도 동남쪽 끝자락 금산군의 중앙부에 위치한 금산읍은 면적 21.57km², 인구 2만 3,405명(2007. 7)의 도시로서 상(上)·중도(中島)·신대(新垓)·하옥(下玉)·아인(衙仁)·상옥(上玉)·계진(桂珍)·양지(陽地)·음지(陰地) 등 총 9개 리(里)로 이루어져 있다. 1940년 읍으로 승격하였고 북쪽으로 구릉에 의해 금성면(金城面)·군북면(郡北面), 동쪽으로 봉황천(鳳凰川)에 의해 남일면(南一面), 남서쪽으로 진악산(進樂山) 줄기와 구릉에 의해 남이면(南二面)·진산면(珍山面)과 경계를 이루며, 읍역(邑域)은 중앙을 작은 하천들이 동류하여 평지를 이루고 있다.

금산읍 남서부에는 진악산(732m)·월봉산(543m) 등이 솟아 있으며, 중북부는 높이 300m 이하의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남부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이 면내를 흐르고 음지리·신대리·양지리 일대에 평야가 발달했다. 해방 후 개성 인삼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삼이 활발히 재배되었고, 여름에도 서늘한 고원성 기후와 사질양토가 인삼의 생육에 적합하여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삼재배지가 되었다.

금산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국도 13, 17, 37호선, 국지도 55호선, 지방도 635호선 등이 지나는 광역교통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선도로들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수도권, 영호남, 대전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금산읍의 주요 문화재로는 금산향교(錦山鄕校:충남기념물 121), 탑선리 석탑(塔仙里石塔:충남문화재자료 326), 아인리(衙仁里) 석탑(충남문화재자료 327), 금산 대원정사(충남문화재자료 337), 금계관(錦溪館), 홍범식 순절비(洪範植殉節碑), 계진리 석탑(桂珍里石塔) 등이 있다.



〈그림 1〉 금산 인삼포

금산읍의 유래 및 역사

금산의 명칭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의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줄여 ‘금산(錦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금산의 금수강산과 같은 자연을 빗대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고려 공민왕 때의 강호문은 “금산 땅이 마치 무릉도원과 같다”고 하였으며,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산이 극히 높아서 들어갈수록 점점 그윽하다”고 하였다. 조선 세종 때 강문수는 “여러 산들이 빙 둘러 높이 솟아 병풍처럼 가려 실로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 표현하였고, 만해 한용운 선생은 금산의 계곡과 울창한 숲을 보며 “이곳을 보지 않고는 천하명승지를 논하지 말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금산의 자연경관은 예부터 많은 선현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하다.

금산은 영남에서 충청 내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써 역사적 변환기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금산 지역은 백제 멸망 전 신라군이 영남지역에서 진군하여 계백의 결사대와 격전을 치르는 황

산별에 이르는 통로였으며 이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주요 접전지역이 되었다. 또한, 견훤과 왕건의 쟁패과정, 임진왜란의 금산전투, 한말의 민란, 1862년의 금산농민군 항거, 1894년 동학농민봉기 등과 같은 변환기에 상대적인 양 세력의 각축 장소가 되었다.

금산에서는 또한 조상들의 애국·충절의 혼을 엿볼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한양과 의주로 진격하기 위해 금산으로 침입한 왜군에 맞서 당시 금산 군수였던 권중(權悤)이 맞서 싸웠으나 장렬히 전사한바 있으며, 금산을 점령한 왜군이 전주로 진격하자 전라도절제사 권율(權慄)과 동북첨감 황진(黃進)이 1,500명의 군사로 배티에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뒀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치대첩’이다. 이뿐 아니라 호남의 의병장 고경명이 이끄는 7천 의병과 조헌(趙憲)과 영규(靈圭)가 이끄는 700의병이 왜군들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곳이 바로 이곳 금산이다.

금산의 자랑

▷ 금산인삼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다. 읍내로 들어서면 ‘인삼로’, ‘약초로’, ‘건삼전길’, ‘개삼로’ 등 인삼을 알리는 거리 안내판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중심가를 벗어나면 한때 우리나라 인삼의 95%까지 생산해 낸 인삼 경작포들이 금산만의 독특한 풍광을 이루고 있다.

금산읍에서 남쪽 9km정도 떨어진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마을에서는 인삼의 눈을 뜨게 한 곳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부터 약 1,500여년 전에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인 아들은 진악산에 있는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불봉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 세 개가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달여드려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강선비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 본 암벽을 찾아가니 과연 그런 풀이 있어 뿌리를

캐어 어머니께 달여 드렸더니 모친의 병은 완쾌되었고, 그 씨앗을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마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우리고장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인삼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人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2〉 금산인삼

이런 효행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금산인삼은 '생명의 뿌리요,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일컬어지면서 백제인삼의 명맥을 오늘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함량은 분지면서 고랭지인 금산처럼 기온 차가 심한 곳에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곳 금산인삼은 그 효능을 제일로 인정받고 있다. 금산 사람들은 이 명약 금산인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금산이 금산일 수 있음은 '금산인삼'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 인삼약초시장

인삼장으로 유명한 금산 인삼·약초시장은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며, 5일 간격으로 장이 형성되나 인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5일 장의 개념은 무너져 매일 인삼·약초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삼·약초시장은 인삼, 약초상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밀집해 있어 '인삼의 거리'로 불리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과 현대적인 유통센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삼의 거리에는 우리나라 백삼의 70~80%가 유통된다는 금산인삼국제시장, 장날이면 하루 거래량이 120여톤에 이른다는 금산수삼센터, 쾌적하게 쇼핑과 인삼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와 장날 평균 300여종의 약초가 거래되는 약령시장, 2일장과 7일장이 서는 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삼전통시장이 연이어 있어 갖가지 인삼과 약초를 구경도 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금산은 국내 최대의 인삼약초시장으로 인삼약초 관련업체가 1,192개소나 되며 금산읍에 들어서면 인삼약초 향기로 인하여 한약방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금산, 무주, 진안 등의

충남의 도시 13 - 금산

산악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약초들을 만날 수 있으며 시골장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 금산인삼축제

예로부터 전해오던 금산의 민속제인 인삼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어지다가 1981년 축제로 자리잡았다. 1999년 제1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를 통해 국제인삼시장의 요충지로 발돋움하였고 제16회부터 문화관광부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 2006년에는 인삼축제와 함께 금산세계엑스포가 열려 일본, 홍콩 등 세계 15개국 80개 기관이 참석하고 내국인 64만7천명, 외국인 1만3천명 등 총 66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가 치러졌다. 금산인삼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이미지 재고를 통하여 대규모 행사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축제는 일반적으로 새벽1시 진악산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인삼재배가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개삼터에서 개삼제를 지내는 것으로 막이 오른다. 이에 앞서 강처사에게 인삼을 내려준 산신령께 감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관음굴 기도회가 열리는 등 다른 축제와 달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요소가 강하다.

인삼의 탄생설화를 배경으로 한 강처사 설화 마당극, 인삼마당극 공연 등이 행사기간 동안 매일 펼쳐지며, 충청남도의 전통민속놀이인 금산물떼기농요(충남무형문화재 16), 100명으로 구성된 금산 아낙네들의 기우제인 농바우끄시기, 남성적이면서 빠르고 경쾌한 가락의 금산농악, 금산좌도풍물굿, 인삼장사씨름대회, 전통민속놀이 등 금산의 전통문화가 시연되어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발전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체험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벌어진다. 그 중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삼캐기여행은 참가자가



〈그림 3〉 금산인삼축제 홍보포스터

직접 인삼밭에 들어가 인삼을 채취하고 최적의 인삼 재배방법, 인삼 캐기, 좋은 인삼 고르기, 인삼요리시식 등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테마여행으로서 최고의 인삼을 수확하는 기쁨과 채취한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2008년도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제28회 금산인삼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 금산다락원

다락원은 연령적으로 노인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등을 두루 아우르는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이다. ‘락(樂)’은 즐거움 락, 좋아할 요, 풍류 악 등 3가지의 의미를 가진 글자로서 “문화를 주제로 하는 금산다락원”을 표현하는 글자이며, 많은 즐거움·기쁨 그리고 풍류가 함께하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금산다락원은 7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12개 보조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되었다. 건립사업은 2만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5,400평의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8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2000년 12월에 시작하여 2004년 5월 부분 준공을 마친 후 10월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스포츠센터는 2006년 개관하였다. 다락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와 일급건축업체의 시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축물로 탄생하였으며, 건축협회에서 선정하는 2005년 베스트 건축물 7에 선정되었다. 건축의 특징으로는 예술성과 시설의 유용성, 운영관리의 경제성을 지향하였으며, ‘가화만사성’과 ‘선의의 마을’이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다락원에는 문예회관, 도서관, 스포츠센터,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 집(보건소), 스포츠센터, 만남의 집(관리동),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민을 포함한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락원은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문화관련 행사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금산의 공직자들은 물론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다락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금산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금산읍의 개발 여건 및 과제

금산읍은 2003년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인삼·약초산업의 메카, 건강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거하여 전략사업이 선정·추진되었다.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인삼·약초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삼·약초시장 내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금산동초등학교 남측 주차장 조성,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 미개통 도시계획도로 개통, 중앙공원 조성 등이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다.

또한, 금산읍은 금산 인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유통과 더불어 연구·산업·관광기능이 복합된 기능이 새로이 입지토록 계획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금산읍 북부권 사회·문화활동특화지구(다락원), 동부권 교육특화지구, 남부권 체육특화지구, 서부권 인삼·약초특화지구 등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하여 4개의 개발거점과 중심부의 중심시가지지를 연계코자하는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거점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는 아직 미흡하며, 중심시가지와 개발거점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조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금산읍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 진악로, 인삼로, 개삼로, 그리고 금산읍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는 금산천과 후곤천에 대해 접근성이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기능이 금산읍의 동부에 입지하고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구도심의 낙후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대전광역시의 확장에 따른 대도시 근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주 인구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Compact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화의 외연적 확산에 대응하고 낙후된 도심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읍 동부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추진하는 금산인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능적으로는 금산읍의 기존 기능과 충돌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공간적으로는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을 융·복합화함으로써 금산읍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능의 입지로 인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심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심가로 환경개선, 구시장길의 경관·미관 개선사업 등이 필요하며, 도시기능의 외연부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산읍 동부에 생태도시형 신시가지지를 조성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금산읍 동서남북의 개발거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동서남북을 환형으로 연결하는 교통네트워크로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등의 조성이 필요 하며, 금산천과 후곶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인삼약초시장과 중심상점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생활밀착형 가로가 형성 되어야 한다. 또한, 중심시가지 교통체계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도심 활성화를 통한 금산읍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금산군, 금산군지
2. 금산군,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2008.
3. 금산군, 금산읍 종합육성계획, 2003.
4.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7.
5. 금산군,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 2001.
6. 금산군 홈페이지, www.geumsan.go.kr
7. 충남발전연구원, 안용산, 산꽃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고향 금산, 열린충남 2004. 겨울호.